

DB가 궁금해? DBGuide에 물어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DB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시 어려운 점으로 기술정보 부족과 DB구축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았다. 프로젝트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만한 주변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DBGuide.Net에서 제공하는 기술 정보와 구축 가이드라인, 산출물 그리고 DB Q&A를 통해 문제를 해결,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컨설팅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글 조기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인적자원개발팀 선임

을 산 지역 민영 방송국인 UBC에서 DBA를 맡고 있는 이태희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고민이 많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어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지,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때문이다.

이태희 씨는 “혼자 모든 전산 인프라를 담당하다보니,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막상 시작하고 나서도 세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이 절실할 때가 많다”고 호소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전산 담당자들은 이태희 씨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역할이 분산된 전산팀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전산 인력이 서버 시스템부터 애플리케이션·DBMS·보안에 이르기까지 회사내 전 IT 인프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산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전문 구축 업체나 컨설팅 기업에 프로젝트를 의뢰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사람이 전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형편이지만, 이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지난해 12월 800명의 DB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 진행시 어려운 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DB

구축 가이드라인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26.8%가 이 같이 답했으며 장애해결능력 미흡 24.1%, 전문인력 부족 24.0%, DB구축 및 운영시 기술정보 부족 23.9%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전산 담당자는 ‘1인 다역’

이태희 씨는 지난 2004년 우연히 광고를 통해 DBGuide.Net(www.dbguide.net)을 알게 된 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DBGuide.Net의 기술 문서와 구축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기술 구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DB Q&A를 통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실제로 이태희 씨는 지난해 초 회사내 MIS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DBGuide.Net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윈도 NT 4.0에, 오라클 7.3.2 워크그룹 서버 버전을 운영 중 이었는데, 성능 개선 차원에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윈도 NT 4.0에서 윈도 2000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오라클 7.3.2를 운영체제가 인식하지 못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태희 씨는 DBGuide.Net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나섰고, 결국 DB가이드 방법론과 DB Q&A '나만의 노하우' 등을 통해 해답을 찾게 됐다.

이태희 씨는 DBGuide.Net 덕분에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던 MIS 시스템 성능 개선 프로젝트를 2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DB 접속 시간도 기존에 6초 이상 걸리던 것이 0.5초 정도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태희 씨는 "단순히 정보를 보던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씩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DB Q&A에 답변으로 올리는 입장이 됐다"면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 전산관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DB 모델링 산출물로 프로젝트 완결!

DBGuide.Net의 정보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전산관리자 뿐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전산팀의 김태철 씨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나 모델링에 대한 산출물을 수집, 프로젝트에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초 김태철 씨는 운반지번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정 프로젝트의 개발 업무를 맡게 됐다. 오라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로직을 수정, 보완해야 했는데, 참고할 만한 모델링 자료가 부족해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김태철 씨는 평소 즐겨 찾던 DBGuide.Net에서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고, 산출물 매뉴에서 운반지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참고 모델 산출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태철 씨는 8개월의 전 프로젝트 기간 중 모델링 측면에서 2~3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모델링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 로직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SQL 외에는 잘 알지 못했던 DB 핸들링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림 1〉 DB 지식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그림 2〉 DB 구축 운영 가이드



380개 기업 상담으로 DB 성능 문제 해결

DBGuide.Net을 통한 문제 해결은 DB 실무자 개인에만 해당되진 않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1대1 온라인 상담과 문제 해결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방부 조달본부 · 농협중앙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190개 기업(관)이 DB 시스템 문제를 해결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이를 DB 전문 컨설턴트가 검토해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 이를 통해 해결된 내용은 DB설계 34건, 설치 127건, SQL 104건, 프로그래밍 53건, 튜닝 36건, 보안 15건, 백업 59건으로 총 473건(기타 45건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관)이 해당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4억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자동화 상담 시스템'은 대우정보시스템 · KT · 삼성SDS · 한국후지쯔 · 인크루트 · 연천군청 · 재외동포재단 · 쌍용정보통신 등 194개 기업(관)이 이용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SQL 분석, 튜닝을 지원하는 온라인 DB 튜닝 서비스(자동화상담시스템)를 개발해 이를 통해 DB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포착,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DBGuide.Net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술 자료와 온라인 상담(DB Q&A), 자동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 평균 접속자는 1만 명으로, 이들은 1,875건(2005년 기준)에 달하는 프로젝트 산출물, 기술자료, 전문가 칼럼, 세미나 자료 등을 정보로서 활용하고 있다.

현재 DBGuide.Net 사용자 중 86%는 DBGuide.Net의 정보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프로젝트 기간을 약 1.3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자체 조사 결과, 2005년 12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획 · 설계 ·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 DB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DBGuide.Ne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순한 기술 정보 및 교육을 넘어 최근엔 온라인 상담, 자동화 상담, DB 튜닝 진단 등 실질적인 DB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